

# 鄭 조기 등판에 丁·孫 위기감 고조

(동영)

(세균) (학규)

## 민주 8월 전당대회서 3자 대결 불가피 “조기경쟁 피하려면 집단지도체제 가야”

에 초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낮은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최근 왕성한 당내 활동으로 보폭을 넓히면서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등 민주당 대권 주자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경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에서 이들 민주당 빅 3간 직접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내 대선 경쟁 조기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빅 3간 조기대결을 피할 수 있도록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당 대표 임기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 대표 측은 이번 지방선거가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내 세력 확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직접 대응하는 쪽은 정동영 의원. 정 의원은 지난 2월 복당 후 정치적 연행을 자제해왔지만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틈을 타 자연스럽게 비주류의 리더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 의원을 잘 아는 인사들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직접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천정배 의원을 대타로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직접 출마를 얘기하는 측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측근은 18일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의 경우 아직 정치재개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라 말을 아끼고 있으나 최근 정 대표 측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세 확산에 나서면서 손 대표가 지원하는 극소수의 출마자들까지 배제시키고 있다는 소속을 전해 들으면서 착잡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대선 주자 간 갈등이 조기에 불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비주류는 물론, 주류 일각에서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3자 대결을 피하기 위해 당

헌·당규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당대표를 정점으로 한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거나, 새 대표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승자독식의 가능성을 낮추자는 것이다.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세 사람 모두 출마해도 지도부에 자리할 수 있다.

또 임기 1년의 대표라면 다가올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 정 의원과 손 전 대표가 출마를 미룰 수 있다. 조기 3자 대결로 서로 상처를 입을 경우 민주당은 차기 대선 시작을 시작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세균 대표가

무리하게 세 확산을 시도하고, 정동영 의원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손 전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당헌 개정 논의를 서둘러 공식화해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대회'에 참석한 5000여 명의 당원들이 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정치권에 '천안함 北風' 솔솔 지방선거 최대 변수 가능성

### 與 “北 공격 확인된 중대 결정” 野 “北 개입시 국가안보 구명”

6.2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천안함 침몰사고가 선거정국을 지배하는 초대형 이슈로 굳어가고 있다.

천안함 사망자의 확인으로 선거 분위기가 전국적 애도열풍 속에 물결타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외부충격’으로 잠정 결론지으면서 국민의 이목은 총격의 주체 규명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개입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가안보 문제가 지방선거의 초대형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이 일거에 ‘북풍’(北風) 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단 여야 정치권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이 완료되고 희생자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는 조문 무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18일 “지방선거 일정은 진행하되 차분하고 엄숙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실종자 수색과 희생자 장례문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개입을 확실하게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북풍을 유도하려 했다’는 역풍을 우려해 예단을 피하고 있고, 민주당은 북한개입설이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

성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병국 대표는 지난 16일 일본 방중중 “만약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안보야말로 국가의 기본이자 기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경우, 백령도 근해에서 군의 초계함이 피격당할 정도로 정부의 안보와 위기대응체제가 허술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북풍의 차단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국가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반증이고 이는 정권 차원에서 중대한 위기”라며 “그 점을 철저하게 짚고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선거의 관도를 좌우했던 북풍 공방이 재현된다면 세종시 수경, 한명숙 전 총리 무죄판결 등의 파급력은 극히 미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문제로 연결되면 보수층이 결집하고 개혁진영이 위축돼 한나라당이 유리한 흐름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안보공백 노출, 한반도 정세불안 극대화, 외국인투자 위축 등으로 오히려 여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지방선거 기초장 속속 확정

- 북구청장 후보 송광운
- 광산구청장 후보 민형배
- 여수시장 후보 오현섭
- 화순군수 후보 전완준

6·2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와 광산구청장 후보에 송광운·민형배 예비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또 여수시장 후보에는 오현섭 현 시장이, 화순군수 후보에는 전완준 현 군수가 각각 선출됐다.

◇광주 북구청장=송광운 예비후보는 18일



송광운 후보



민형배 후보



오현섭 후보



전완준 후보

다. 배선거 예비후보는 22.42%를 얻는데 그쳤다.

오 후보는 이날 시민배심원단 투표에서 총 투표표 161명 가운데 57표(35.40%)를 얻는데 그쳤으나 당원전수 여론조사에서 44.95%(1천 690명)의 지지도를 획득해 각각 50%씩을 반영한 종합투표에서 최종 당선자로 결정됐다.

김 후보는 시민배심원단 투표에서 71표(44.10%)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30.71%(1천153명)에 그쳐 근소한 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배 후보는 시민배심원단 33표(20.50%), 전당원여론조사 24.34%(915명)를 기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선거철 고정 메뉴 ‘공천헌금’ 구태 여전

### 한나라 소속 여주군수 돈다발 건넨다 적발

한나라당 소속 여주군수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에 거액의 돈다발을 건넨다 적발된 사건은 정치권의 ‘검은 공천’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야 정당은 이번 선거 때마다 ‘클린공천’을 내걸며 돈 선거 차관 의지를 되세기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실제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천헌금 사건은 2건이나 더 있다. 지난 대선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천헌금 사건은 2건이나 더 있다. 지난 대선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천헌금 사건은 2건이나 더 있다. 지난 대선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천헌금 사건은 2건이나 더 있다.

중앙선거위 측은 “공천 헌금 등 금품수수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져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8일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금품·음식물 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544건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비슷한 시기에 중앙선거위에 포착된 금품·음식물 제공 건수가 876건이었다는 점에서 위반 사례가 줄기는 했으나, 돈·함용 선거의 구태 여전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공천 헌금을 비롯한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연합뉴스

###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현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 한국부동산권설팅

구 합

-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 연산동 - 요기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 벽진동 - 참고용지/500평정도
-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 삼거동 - 2만3천평/상당후결정
-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집
- 중흥동 - 200평/대로집(100%대출가) 상당후결정
-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집(100%대출가)
-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집(100%대출가)
-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 /대로집(100%대출가)
-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 광산구 신동동 - 1500평/50만원 도로집 (물류창고 적합)
- 만평 품암지구 수완지구
-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 한국부동산 권설팅

서구형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